

아동거주가구의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 잠재집단분석을 이용한 유형화

A Multidimensional Approach on Poverty of Households with Children : A Typology Using Latent Class Analysis

정은희*, 최유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Eunhee Joung(ehjoung@kihasa.re.kr)*, Youseok Choi(yschoi@hallym.ac.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잠재집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이 있는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등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 박탈은 높지 않지만,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이다. 다차원 박탈 집단은 열악한 주거환경, 식생활 영역 및 고용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비빈곤 집단은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다.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 교육, 문화적 자원의 박탈 등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아동빈곤 | 다차원적 박탈 | 주거비 과부담 | 잠재집단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children poverty in Korea. Using the 7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conducts latent class analysis to classify households with children. Results show that households with children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1) housing expenditure overburdened households, 2)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households, 3) non-poverty households. The housing expenditure overburdened households have higher rates of housing expenditures than the other two groups. The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households experience various types of deprivation such as food insecurity, poor housing, and unstable job security for householders. The results imply that comprehensive approaches are needed to address multiple problems which poor households with children suffer.

■ keyword : | Children Poverty |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 Housing Expenditure Overburden | Latent Class Analysis |

* 이 연구는 정은희(주저자)가 2013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발전시킨 것임

접수일자 : 2014년 04월 28일

수정일자 : 2014년 05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6월 02일

교신저자 : 최유석, e-mail : yschoi@hallym.ac.kr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영역에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아동빈곤¹⁾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신체, 정서, 인지발달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인다[1]. 또한 빈곤가구의 아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에도 누적되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2-4].

통계청의 아동빈곤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감소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 상대빈곤율²⁾은 10%에서 8.6%로, 절대빈곤율³⁾은 7%에서 6.4%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아동의 삶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은 아동빈곤의 실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하고 중위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율은 빈곤집단의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빈곤율이 감소한 또 다른 이유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율의 변화이다. 아동가구의 감소가 저소득계층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아동빈곤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7].

둘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은 빈곤 아동의 삶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빈곤연구는 소득과 같은 단일차원에서 빈곤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빈곤가구의 아동은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한 수준의 자원의 결핍을 경험한다. 그러나 소득빈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아도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구소득이 적어도 아동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또한 존재할 것이다. 소득빈곤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8]. 성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빈곤 집단의 특성과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빈곤에 대한 접근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가구의 빈곤 특성과 구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욕구와 생활상의 어려움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이 있는 가구가 경험하는 생활상의 궁핍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밝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인적 자원인 아동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동빈곤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빈곤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아동빈곤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아동빈곤의 구조적 특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빈곤정책과 관련하여 빈곤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아동빈곤의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다차원 빈곤의 개념

1) 본 연구에서 아동빈곤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아동빈곤과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특별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기의 빈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 등의 용어로 명확히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2)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1인 가구가 포함된 수치이다.

3)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며,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이다.

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이다. 기본 욕구는 좁은 의미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욕구,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 내에서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하기 위한 욕구라고 볼 수 있다[9]. 이와 같이 빈곤은 개인이 지닌 자원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10][11]. 따라서 필요한 자원과 기본적인 욕구의 유형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유형과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빈곤에 관한 소득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욕구의 다양한 형태와 수준을 고려한 빈곤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다차원적 빈곤의 대표적인 예로 Rawls[12]의 정의론, Townsend[13]의 사회적 배제, Doyal & Gough[14]의 기본욕구 일람표, Sen[15][16]의 실현능력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Rawls[12]는 기본제의 최저수준이 개인의 평등을 확보해 주며, 기본제의 결핍을 빈곤이라고 보았다. 기본제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개인이 속한 시대와 사회에 따라 기본제는 다를 수 있다[12]. Townsend[13]는 일반적인 삶이나 관습 및 활동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배제된 것을 결핍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배제는 한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17].

Doyal & Gough[14]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빈곤은 이러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다[14]. Doyal & Gough[14]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기본욕구(basic need)와 중간욕구(intermediate need)로 구분하였다. 기본욕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욕구이며, 신체건강(physical health)과 자율성(autonomy)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욕구는 개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욕구로서,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⁴⁾

실현능력 접근을 주장하는 Sen[15]은 부와 재화를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간

의 발전방향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거나(beings) 실제로 할 수 있는(doing)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15]. 따라서 빈곤은 인간이 능동적인 주체로서 스스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실현능력이 결여된 상태이다[18]. 실현능력접근에서는 수단이나 도구로써 소득, 재화, 자원은 실현능력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소득이나 자원은 도구로써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18]. 그러나 일정 정도의 소득이나 자원이 수단인지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한 접근이 주를 이룬다[8][30]. 사회적 배제접근을 이용한 연구는 박병현과 최선미[19], 신명호[20], 강신욱 외[2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사회적 배제를 이용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을 이용한 빈곤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 아동거주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지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빈곤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기본적인 욕구로 언급된 영역을 포함하였다. 셋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특성이 아동빈곤과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유니세프는 1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아동빈곤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였다[22]. 유니세프에서는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신체발달, 인지자극, 의생활, 식생활, 주거환경, 건강 및 놀이 등 14가지 영역별 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을 측정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구성할 경우에는 아동기에 중요한 욕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건강, 주거, 식생활, 교육, 의생활 및 놀이 영역에서의 욕구 충족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이다[22]. 건강, 주거, 교육, 식생활 등의 영역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욕구로 제시하고 있다[8][14][23].

⁴⁾ 11개의 지표는 1) 균형잡힌 음식과 깨끗한 물, 2) 적절한 주거, 3) 근로환경, 4) 물리적 환경, 5) 의료보호, 6) 안전한 아동기의 보장, 7) 지지집단, 8) 경제적 안전, 9) 건강, 10) 교육, 11) 안전한 임신과 피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소득보장정책에 비해 취약하다. 따라서 주거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경우, 다른 영역의 소비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교육, 문화, 식생활 및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지출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문화, 식생활 등의 영역에서의 결핍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대물림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24-26].

본 연구에서는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영역을 포함하여 이현주 외[8]의 연구에서 제시한 고용, 근로능력, 및 금융신용 등의 지표로 선정하고자 한다. 고용, 근로 및 금융신용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아동과 생활하는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것이 아동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아동의 의생활, 사회적 관계망 및 놀이 영역의 지표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가구를 과대표집하여 빈곤가구의 특성을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가구가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결핍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총가구는 5,731 가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1,608 가구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는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고용, 근로능력, 및 금융신용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고용, 근로능력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지출 과부담 및 박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주거의 경우에는 1) 주택소유 상태,

2) 주거비 과부담, 3) 주거생활 박탈 경험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에는 주거비용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였다. 주거생활 박탈은 현재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거나, 난방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주거생활 박탈로 정의하였다.

식생활 박탈의 경우, 1)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2)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먹는 경우, 3) 배가 고프게 못먹는 경우가 가끔 있거나 자주 있는 경우 등을 식생활 박탈로 정의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비 과부담 여부를 이용하였다. 교육비 과부담은 교육비 지출이 월소득의 20%이상인 경우를 교육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였다⁵⁾.

의료분야의 경우에는 의료비 과부담, 의료 박탈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였다. 의료 박탈은 1)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거나, 2)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의료비 과부담은 의료지출이 가구소득의 20% 이상인 경우를 의료비 과부담가구로 정의하였다.

고용과 관련된 변수는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1) 임시직, 일용직, 자활, 실업, 2) 비경제활동, 3)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근로능력은 1) 근로 불가능, 2) 근로미약, 단순근로 가능, 3) 근로 가능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 박탈의 경우에는 신용 불량인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가구와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1) 가구주의 연령, 2) 가구주 성별(남성, 여성), 3) 가구원 수, 4) 노인 가구원 유무, 5) 가구주의 학력(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6) 지역(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7) 주관적 계층의식(상층, 중간층, 중하층, 하층), 8) 주관적 건강상태, 9) 만성질병 유무, 10)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11) 순자산 규모, 12) 가처분 소득(월), 13) 어린 시절 경제수준, 14) 가구주 부의 교육수준, 15)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나타

⁵⁾ 이현주 외[8]의 연구와 이태진 외[27]의 연구에서도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이 20% 이상인 경우를 교육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낸 것이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영역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	주거 소유상태	월세, 전세, 자가, 기타
	주거비 과부담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30% 이상
	주거생활 박탈	쫓겨나거나, 난방비 못 냄
식생활	식생활 박탈	균형잡힌 식사를 못함
교육	교육비 과부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이 20% 이상
의료	의료비 과부담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
	의료 박탈	건강보험료 못내거나 병원에 못 감
고용	경제활동 참여상태	임시, 일용, 자활, 실업
		비경제활동 고용주,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상용직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 불가능 근로 미약, 단순근로 가능 근로 가능
금융	신용불량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음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집단을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사대상인 아동거주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다차원적 박탈 및 빈곤지표에 관한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 집단에 대한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집단은 매우 추상적이고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다. 잠재집단분석은 관찰된 변수를 통해 관찰하기 어려운 집단을 규명하는 분석방법이다[28]. 또한 잠재집단분석은 빈곤집단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탐색적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잠재집단분석 결과, 아동거주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빈곤’, ‘비빈곤’ 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다항로지분석을 통해 어떠한 특성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다차원 빈곤가구가 될 확률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보면 임시직/일용직 등 불안한 형태의 비율이 18.4%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55.5%였다. 가구의 97%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영역에서 주택소유 비율은 53.7%, 전세/월세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주거비 과부담인 경우는 13.6%였으며, 난방비를 내지 못하거나, 쫓겨난 경우는 4.0%였다. 교육비 과부담의 경우 1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 아동거주가구의 특성 (n=1,608)

영역	구분	비율 및 평균 (표준편차)
고용	임시, 일용, 자활, 실업	18.4
	비경제활동	6.7
	고용주, 자영, 무급	19.4
	상용	55.5
근로능력	근로불가능	0.3
	미약, 단순근로	2.7
	근로가능	97.0
주택소유 형태	월세	15.3
	전세	25.9
	자가	53.7
	기타	5.1
주거	주거비 과부담	13.6
	주거생활 박탈	4.0
교육	교육비 과부담	18.4
의료	의료비 과부담	2.4
	의료박탈	1.9
금융	신용불량가구원	4.9
식생활	식생활박탈	3.5
자산, 소득	순자산(만원)	25,033 (42,359)
	가처분소득(월/만원)	449 (275)
상대빈곤	중위소득 40% 미만	3.5
	중위소득 50% 미만	7.3
	중위소득 60% 미만	12.0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2.4%로 주거비, 교육비 과부담 가구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의료박탈의 경우에도 1.9%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이 높기 때문이다.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4.9%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박탈의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원이었으

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449만원으로 나타났다. 상대 빈곤의 경우, 중위소득 40%, 50%, 60%로 각각 정의했을 때, 각각 3.5%, 7.3%, 12%로 나타났다.

2. 잠재집단분석

2.1 분석모형의 적합도 검증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먼저 집단의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우도비 카이제곱 검증(likelihood ratio chi-square test), Entropy, AIC, BIC 등과 같은 적합도를 기준으로 집단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우도비 카이제곱과 AIC는 값이 낮을수록 추정치와 관측자료를 잘 나타낸다. 반면 Entropy 지표는 높을수록 모형적합도가 좋으며, 대체로 0.8 이상인 경우 모형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29]. Lo-Mendell-Rubin Adjusted LRT (likelihood ratio test) 검증의 경우, 집단 수가 k-1개인 모형과 k개인 모형의 우도비를 비교하여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도를 검증한다.

표 3. 잠재집단 모형의 적합도

집단수	LR χ^2 /df(p)	Entropy	AIC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Value	P
1개	1670.5 /6077(1.00)		12910.2		
2개	1714.5 /6102(1.00)	0.84	12292.0	644.7	0.465
3개	1465.5 /6085(1.00)	0.79	12072.4	249.5	0.004
4개	1344.8 /6065(1.00)	0.84	12015.7	88.0	0.366
5개	1336.9 /6055(1.00)	0.75	11982.8	64.3	0.620

[표 3]은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우도비 카이제곱 검증의 경우 집단 수가 3개인 모형부터 검증값이 낮아지고 있다. Entropy 지수의 경우 집단의 수가 4개인 경우 가장 높고(0.84), 다음으로 3개인 집단의 수가 4개인 경우 가장 높고(0.79)이 높게 나타났다. Lo-Mendell-Rubin adjusted LRT 검증 결과, 집단이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와 모형 적합도에 차이가 있는 반면, 집단이 3개인 경우와 4개인 경우에는 우도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과 간결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3개 집단 모형을 선정하였다.

2.2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잠재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된 각종 박탈 지표별 조건부 응답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과 각 집단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부 응답확률이란 분석대상 가구가 특정 집단에 소속될 경우, 각 박탈지표의 특정범주에 해당할 확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첫번째 집단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구일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0.46). 다른 지표에서는 첫번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박탈확률을 보였다. 따라서 첫 번째 집단을 주거비 과부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이등거주자구의 유형과 조건부 응답확률

영역	구분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고용	임시, 일용, 자활, 실업	0.19	0.44	0.13
	비경제 활동	0.03	0.32	0.03
	고용주, 자영, 무급	0.08	0.15	0.23
	상용	0.70	0.08	0.60
근로 능력	근로 불가능	0.00	0.03	0.00
	근로 미약, 단순근로	0.00	0.21	0.00
	근로 가능	1.00	0.77	1.00
주택 소유	월세	0.03	0.53	0.12
	전세	0.98	0.18	0.09
	자가	0.00	0.20	0.74
	기타	0.00	0.09	0.06
식생활	식생활 박탈	0.00	0.24	0.01
	주거비 과부담	0.46	0.24	0.03
주거	주생활 박탈	0.00	0.29	0.01
	교육비 과부담	0.19	0.20	0.18
의료	의료비 과부담	0.01	0.14	0.00
	의료 박탈	0.01	0.11	0.01
신용	신용불량 가구원	0.01	0.31	0.01
	사례할당비율	21.60	10.80	67.60

[표 4]의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잠재집단의 각 지표별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먼저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보면, 임시직, 일용직, 자활 등 불안정 고용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0.44). 주거상태가 월세일 가능성(0.53)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식

생활 박탈의 경우 세 집단 모두 낮은 응답확률을 보였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집단의 식생활 박탈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확률(0.24)을 나타냈다. 두 번째 집단은 주거생활 박탈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확률을 보였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 영역에서는 세 집단 모두 낮은 응답확률을 보였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의료비 과부담 및 의료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을 확률 또한 두 번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 집단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집단을 다차원 박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구주가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고, 주택소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박탈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에서 응답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 집단을 비빈곤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잠재집단 분석결과, 집단의 수는 3개로 나타났으며, 각각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집단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4]의 마지막 행에는 각 집단별 사례비율이 나타나 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6%였다. 다차원 박탈 집단의 사례비율은 10.8%, 비빈곤 집단의 비율은 67.6%로 나타났다.

3. 다항로지분석: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집단 추정

어떠한 요인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다차원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다항로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5]. 다항로지분석에서는 비빈곤 집단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어떠한 변수가 비빈곤 집단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또는 다차원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과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하였다.

표 5. 다항로지 분석 결과

		주거비 과부담 (표준오차)	다차원 박탈 (표준오차)
가구주 연령		0.041* (0.016)	0.067*** (0.020)
여성 가구주		-0.155 (0.437)	0.532 (0.456)
가구원 수		0.160 (0.116)	0.362* (0.165)
노인 가구원		0.081 (0.375)	0.663 (0.485)
가구주 학력 (대학원 이상)	중졸 이하	0.955 (0.538)	-0.098 (1.079)
	고졸	0.527 (0.374)	-0.164 (0.979)
	대졸	0.274 (0.350)	-0.471 (0.949)
지역 (도농 복합군)	서울	-1.168 (0.663)	-0.599 (0.829)
	광역시	-0.013 (0.660)	-0.521 (0.841)
	시	-0.503 (0.652)	-0.126 (0.802)
	군	-0.525 (0.710)	-1.317 (0.919)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하층	-0.472 (0.489)	-0.032 (1.265)
	중하층	-0.334 (0.429)	-0.307 (1.221)
	중간층	-0.074 (0.397)	-0.387 (1.214)
주관적 건강상태		0.094 (0.175)	0.666** (0.204)
만성질병		-0.149 (0.189)	-0.018 (0.301)
기초보장수급		-0.099 (0.523)	0.851 (0.565)
순자산		0.001 (0.002)	-0.015*** (0.004)
가처분소득		0.008 (0.022)	-0.209*** (0.044)
어린시절 경제수준	가난하지 않음	0.035 (0.178)	-0.100 (0.275)
가구주 부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0.142 (0.241)	-0.319 (0.396)
	고등학교	0.098 (0.259)	0.252 (0.488)
	전문대 이상	0.461 (0.371)	-0.144 (0.721)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0.371 (0.253)	-0.489 (0.424)
	고등학교	-0.622* (0.299)	-1.077 (0.676)
	전문대 이상	-0.726 (0.594)	-16.825*** (1.204)
상수		-1.112 (1.269)	-0.244 (2.355)

*** $p < .0001$ ** $p < .001$ * $p < .05$

주: 변수명에서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범주를 나타냄.

분석결과, 비빈곤 집단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이 관련을 맺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비빈곤 집단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초졸인 경우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비빈곤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등에서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차원 박탈집단에 속할 확률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상태, 순자산 규모, 가처분 소득,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산과 소득이 적을수록 비빈곤 집단에 비해 다차원 박탈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 초졸에 비해 다차원 박탈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을 경험하는 빈곤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2012년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빈곤 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상의 박탈을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할 경우, 아동거주가구는 1) 주거비 과부담 집단, 2) 다차원 박탈 집단, 3) 비빈곤 집단 등 세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소득과 자산에서 비빈곤 집단과 차이가 없지만, 주거와 관련된 지출 부담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차원 박탈 집단은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근로능력은 있지만 고용상태는 불안하며, 전/월세에 거주하며,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식생활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

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각 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기 위해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변수를 투입하여 다항로지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잠재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상태, 자산 규모, 소득, 가구주 어머니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의 소득 중심의 빈곤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빈곤아동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포착할 수 있는 생활상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빈곤 집단을 규명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소득기준의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이지만 빈곤집단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가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주거비 과부담 집단의 경우 중간소득계층도 포함되어 소득기준만으로는 빈곤집단으로 선정되지 못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질적으로 상이한 유형의 빈곤집단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8].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근로능력, 의료박탈, 의료비 과부담 등의 박탈이 빈곤집단을 유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밝히고 있다[8].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인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주가 근로능력자였다. 아동거주가구의 경우 근로능력이 빈곤집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기준만으로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의 규모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다차원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약 10.8%로 아동빈곤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에 근거하여 빈곤집단을 규정하였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현행 제도에서는 주로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빈곤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정책의 대상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일부는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다른 정책에서도 이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정책의 수급자격 결정기준에

서 소득뿐만 아니라, 욕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욕구중심의 빈곤정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향후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빈곤정책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만큼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보충방식은 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통합되어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수준은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게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또한 해당 가구에서 임대료 지급을 위한 지출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주거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다차원 박탈 집단의 경우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은 식생활 소비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보충 방식의 빈곤정책보다는 각 영역과 관련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빈곤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거주 가구 중에서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다차원 박탈 집단의 가구주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근로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빈곤집단의 경우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수와 연계된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차원 박탈 집단에 비해 높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소득과 자산이 빈곤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주거비용 지출(예: 주택용자 대출금 및 이자비용)이 높다. 따라서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 필요한 지출이 빈곤 집단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영역에서의 소비지출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저축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축적은 아동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행 주거관련 정

책들은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폭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빈곤 문제의 해결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교육·문화적 자원의 결핍 등 다차원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입은 소득중심전략 이외에도 인적자본 개발과 동시에 다차원적인 개입전략을 선택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인 추진모형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사회서비스 개입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빈곤가구를 과대표집합에도 불구하고, 아동가구 및 빈곤아동가구의 비율은 과소추정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추정한 다차원 빈곤 집단의 비율도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동빈곤의 특성을 밝히는 방식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였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은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빈곤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 문헌

- [1] G. Duncan and Brooks-Gun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97.
- [2] G. S. Becker,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1.
- [3] G. S. Becker, *Human Capital*, Chicago: Univ. Chicago Press, 1993.
- [4] W. J. Wilson,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 Chicago, IL: Univ. Chicago Press, 1987.
- [5] 김문길, 김태완, 우선희, 이서현, *2012년 빈곤통계 연보*,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 [7] 김은정,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91호, 2013.
- [8]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9] <http://www.britannica.co.kr/>
- [10]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11] P. Saunders, *Towards a credible poverty framework: From income poverty to deprivation*, SPRC(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Discussion Paper, p.131, 2004.
- [12] J. A. Rawls,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 [13] P. Townsend,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Allen Lane, 1979.
- [14] L. Doyal and A. Gough, *A Theory of Human Need*, Macmillan, London, 1991.
- [15] A. Sen,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povert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81, No.2, pp.285-307, 1979.
- [16] A. Sen,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London Press, 1992.
- [17] J. Hills, J. Le Grand, and D. Piachaud,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18] J. Robeyns,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6, No.1, pp.93-114, 2005.
- [19] 박병현, 최선미, “사회적 배제 및 하층계급의 개념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45권, pp.185-219, 2001.
- [20] 신명호, *사회적 배제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
- [21]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22] Uniceff, *Measuring Child Poverty: New League Tables of Child Poverty in the World's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0,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2012.
- [23] 최균, 서병수, 권종희,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1호, pp.85-111, 2011.
- [24] 김위정, 김왕배,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권, 제6호, pp.1-36, 2007.
- [25] 박문수, 하성규, *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 달성방안*, 대한주택공사, 2000.
- [26] 이상은,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진”,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2호, pp.53-76, 2008.
- [27] 이태진, 정홍원, 강신욱, 김진수, 김태완, 남상호,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8] 이재열,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29] L. A. McCutcheon, *Latent Class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1987.
- [30] 강현정, 김윤정,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323-334, 2011.

저 자 소 개

정은희(Eunhee Joung)

정회원



- 199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학사)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9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Ph.D.)
- 2012년 1월 ~ 현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빈곤정책, 비교정책

최유석(Youseok Choi)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5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Ph.D.)
- 2009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복지정책, 복지행정, 비교복지국가